

12월의 기도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로마서 4장 16절>



1.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와 DCEM의 선교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2.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3.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4.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5. 우리 삶의 계획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DCEM 성회안내

2016년 1월 11일에 일본 순복음동경교회와 1월 13일에 일본 오사카순복음교회에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을 초청하여 축복성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오사카순복음교회, 시가키 시계마사 목사께서 후원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성인, 김정환, 박우택 원로장로, 순복음정릉교회 조종숙목사, 신한림, 안희순, 오주봉, 오현주, 이형준, 원소선, 정정자, 최인철, 함석숙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010-2726-****,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외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의 특별 메시지

마음의 장애를 고쳐라

육신의 장애를 갖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장애를 갖고 사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정신적, 심적 장애를 갖고 사는 것도 고통이 많습니다. 특별히 정신적, 심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물의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불안장애학회는 몇 해 전, 학술대회에서 서울 및 5대 광역시에 사는 20세에서 60세 사이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불안 지수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25% 즉, 4명 중 1명은 전반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고 우울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정신분석학적으로 우울증은 평소에 자신이 의존하는 대상을 잃을 때 온다고 합니다. 평소에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나 부모를 의지하고 있다가 그 돈이나 지위, 명예나 권세, 부모의 도움이 사라지게 될 때 의지할 곳 없애 마음이 불안에 떨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을 잘 지켜서 방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건강의 필수적인 요소로 마음의 건강을 말합니다.

장애가 있으면 성장이 저해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모든 것에서 장애를 제거하면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생명을 나타내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애를 제거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하는 생각,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부정적인 말, 이런 장애를 제거해 버리면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생명력이 쭉쭉 자라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장애를 다 제거해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용서받은 마음의 평화,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축복, 치료받은 은혜, 영생복락을 생각하고 그것을 입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 말이 나가서 기적을 만들어 오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고백한 말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씻음을 받고 용서와 성령 거룩한 충만을 받고 치료와 축복과 은혜를 받아 마음의 장애에서 모두 해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순복음동경교회 축복성회

조용기 목사, 1976년 일본 일천만 구령 선포, 순복음동경교회 순복음영성의 선교 전진기지



일본은 1859년 첫 개신교 선교사로서 리긴스, 윌리엄 선교사가 나가사키에 온 것을 시작으로 해본 선교사 부부, 베크, 브라운, 시몬 선교사 등이 일본 땅을 밟으면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선교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일본 특유의 문화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도 복음전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1976년 일본 일천만구령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조용기 목사는 일본 전체 인구 중 10%에 해당되는 1000만 명의 일본인을 복음화하겠다는 목표로 일념으로 일본선교에 매진해왔다. 1977년 최자실 목사와 함께 동경 부흥성회를 인도한 것을 시작으로 각 지방에서 성회를 하고 방송과 라디오, 교회개척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복음전파에 노력을 다한 결

과 현재 그 일천만구령의 열매가 일본을 뒤덮고 있다.

순복음동경교회는 일천만구령을 위한 '순복음영성의 요람'으로, '순복음의 영성'으로 훈련받은 선교사를 파송 하고 지성전을 세우는 것은 물론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을 일본 전역으로 보급하는 선교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조용기 목사는 일천만구령 운동의 화룡점정을 위해 순복음동경교회에서 축복성회를 올해에도 여러 차례 개최했다.

지난 11월 18일에 열린 올해 마지막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축복성회에는 성회 당일 많은 비가 내릴 거라는 기상청의 예보와는 달리 따뜻한 햇살이 비추며 주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를 예

고했다. 그리고 순복음동경교회 대성전은 현지 일본인 성도와 한국인 외에도 중국인 성도, 인근 지성전에서 참석한 성도들로 가득했다. 성도들의 환영 속에 등단한 조용기 목사는 '살아있는 교회'(행 8:4-8)라는 제목으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그리고 예수님의 전인구원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통역은 시가키 시계마사 담임목사가 맡았다.

순복음동경교회는 시가키 시계마사 목사가 담임을 맡게 되면서 기존 한인 성도들과 더불어 일본인 성도들뿐만 아니라 중국인 성도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절대 긍정 절대 희망의 복음을 안고 '생각. 꿈. 믿음. 말'을 통해 성령과 동행하며 세계 선교를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겠다는 목표를 세워 전진해 나아가고 있다.

자화상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사람들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자기 자화상을 살펴보고 자기의 삶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자화상이란 살아오는 세월동안 사람들 속에서 배우고 느끼고, 살펴보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것을 뜻합니다.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언어 행동이 밝고 맑고 담대하며,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심신이 고달프고 생활이 어둡고 침울하고, 열등의식과 좌절감에 끌려갑니다.

1. 나의 자화상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볼 때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별 볼일 없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가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어 보지 말고, ‘대단하구나. 나는 사랑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할 수 있다. 존경 받을 수 있는 자화상, 성공적인 사회원이 된 자화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그것을 생각해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만들지도 않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돌보고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택해 주어도 대단한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잡아주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대한 증언을 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광채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2.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자화상

자화상은 우리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행동은 생각이 만들어낸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내일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활 속에서 생각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자화상이 그 자화상과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자화상은 자기에 대한 생각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화상과 일치하는 삶의 행동이 나타나는데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 “뭐 어찌고 어찌? 그것을 말이라고 하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하심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분량대로 믿음을 주셔서 태어났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부자가 아닐지라도 영적으로 우리는 굉장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저서한 알 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는 힘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태산을 옮기는 능력이 배후에 역사하게 되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기에 어깨에 힘 좀 넣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 안에 하나님이 주신 뚜렷한 자화상이 있으면 그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환경에 어떠한 좋은 것을 가져다 놓아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3. 변화된 삶을 위하여

변화된 나의 삶을 가져오기 위하여 스스로의 자화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선택 사

람이라고 믿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나쁘고 독한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으면 가정에서나 사회생활에서도 나쁜 일을 하게 됩니다.

자화상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화상에 대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바라고, 믿고, 말하면 영적으로 성공적인 자화상을 갖게 됩니다.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야 잘되고 발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수입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행복함이 가득한 사람이 수입도 많다는 것입니다. 런던정경대학 연구팀이 1만 50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금 행복한 아이들이 미래에 행복감이 높은 것은 물론 수입도 많았다고 합니다. 현재의 긍정적인 자화상이 미래의 수입에도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행복한 사람이 대부분 더 낙관적이고 진취적이기 때문에 학점이나 취업, 승진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화상은 우리의 행동과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좋든 안 좋든간에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지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그린 자화상을 따라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거듭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생활적으로 부유하고, 영원한 부활과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자화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 역사하시니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적을 기대하며 “나는 내가 바라보고, 믿고, 말한 대로 된다.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지 말자”라고 늘 선포하면 놀라운 기적의 삶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 초청 순복음동경교회 축복성회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라”



지난 11월 18일에 열린 순복음동경교회 축복성회의 주 강사로 초청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빌립 집사에 대해 전하며 “빌립은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한다. 그래야 믿고 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조용기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심을 통해 이루신 오중복음에 대해 증거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다섯 가지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매일 기억해야 한다. 이 오중복음을 받아들이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전인구원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전하자 표적이 나타났다고 강조한 조용기 목사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반드시 기적을 체험해야 한다.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통해 기적을 주셨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기 목사는 또한 “그리스도를 전하라.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은 떠나가고 표적이 나타나며 큰 기쁨이 있게 된다. 살아있는 교회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쁨이 충만한 교회다. 기적이 나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마음에

확실히 믿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용기 목사는 성회 참가자들을 위해 신유기도 한 후 모두가 기적을 체험하길 당부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조용기 목사의 성회를 통해 성도들은 큰 용기와 믿음을 얻었다고 고백했다. 특히 일천만구령에 대한 확신과 꿈을 심어주었다. 한편 이번 축복성회에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북부지방회(회장 고경환 목사) 소속 목회자와 동북아일본총회 동경지방회 목회자들이 참석해, 스승 조용기 목사의 사역과 일본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다.

